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1

Table with columns: 05:00, 09:40, 15:15, 18:55. Rows show EBS 1 program schedule.

EBS플러스1

Table with columns: 00:00, 13:05, 14:00. Rows show EBS Plus 1 program schedule.

EBS플러스2

Table with columns: 07:00, 15:50, 16:20. Rows show EBS Plus 2 program schedul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음 9월 28일 己丑)

- 48년생 현재에 얽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60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72년생 남의 일에 나서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84년생 관리에 철저히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84년생 관리에 철저히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84년생 관리에 철저히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 42년생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으니라. 54년생 모순된다면 양자 모두를 저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66년생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80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문제가 생긴다.

88년 '깨알 복고'에 시청자 응답하다

tvN '응답하라 1988' 동시관대 시청률 1위

1988년은 '쌍팔년'이라고 불리워야 제맛이다. 당시 담배는 '팔팔'이 최고였고, 한강 남쪽을 끼고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팔팔올림픽대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모든 '현상'은 1988년 9월17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한 '88서울올림픽' 때문에 일어났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던 27년 전의 서울에서는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졌다.

6월 밤 첫선을 보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바로 그때 그 시절로 시청자를 순간 이동시켰다. 첫화의 시청률은 6.7%(이하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순간 최고 시청률은 8.6%로 집계됐다.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관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응답하라'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갔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배우 이미연(이미연은 1988년 가장 인기가 있던 청춘스타였다)의 부드러운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 드라마는 정이 넘치고 꿈이 커졌던 서울 도봉구 상문동의 한 골목을 중심으로 다섯가족의 면면을 소개했다.

'꽃보다', '삼시세끼' 시리즈 이전에 tvN의 대표 얼굴이 됐고, 전작인 '응답하라 1997'(2012)과 '응답하라 1994'(2013)의 성공에 힘입어 시청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등장한 3탄 '응답하라 1988'은 첫회 '손에 손잡고'에서 바로 시청자를 추억의 도가니에 빠트렸다.

88서울올림픽 이면에 자리한 철거민의 눈물과 노동자의 고통,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정권의 바리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답다'고 믿게 만드는 최민가 스스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아직은 인식과 정이 넘쳐나던 시절 '팔팔'했던 17살 고등학생들의 시선으로 1988년을 돌아본다.

변진섭과 이문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영웅본색'으로 대표되는 홍콩영화 신드롬이 일어났으며, 고등학교 한 학년 동급생이 보통 1천500명이 됐던 그 시절에는 친구가 많아 후라이드 치킨은 물론이고, 계란 후라이도 늘 모자랐다.

성리원 케이크가 등장하기 이전에 버터 케이크가 있었고, 월 드론이 무려 300원으로 출시돼 '경악'하던 시절이었다.

드라마는 '응답하라'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깨알 복고'의 재미와 감동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비디오 테이프 TV를 녹화하고 카세트 테이프로 가요를 늘어지게 듣던 주인공 학생들의 엄마들은 미장원에 나란히 가서 '빠마'(퍼머)를 한



후 저마다 보자기를 돌려쓰고 집으로 돌아와 두어 시간 콩나물과 멸치를 다듬다 다시 미장원으로 가서 보자기를 꼴였다. 전작들과 가장 달라진 점은 주인공 가정의 식구가 늘어났고, 가정 형편이 조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응답하라 1988'의 성덕선(혜리)은 '징글징글한' 3남매의 둘째다. 그것도 전형적인 '둘째의 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캐릭터다. 여기에 1997년과 1994년에는 각각 프로 야구팀 코치였던 성동일은 1988년에는 한일은행에 다니는 화이트칼라로 변신했지만 빛보증을 잘못 선 덕분에 다섯 식구가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 신세가 돼버렸다.

한편이 아쉬운 집안의 서러운 둘째 딸 성덕선은 그러나 예쁜 외모와 이름만큼 착한 심성, 특유의 강을 무기로 잘 큰 모양이다. 이미연이 내레이션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27년 후 오늘의 '성공한' 성덕선으로 등장해 깜짝 재미를 안겨줬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주인공의 어제와 오늘을 다른 배우로 캐스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연은 성덕선과 같은 1971년생으로 올해 마흔다섯이다.

드라마는 전편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성덕선의 현재 남편이 '그 시절 친구들' 중 과연 누구인지에 몰음표를 둔 채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빅뱅 '멜론뮤직어워드' 아티스트상 등 4관왕

앨범상 엑소·핫트렌드상은 '무한도전' 수상

빅뱅이 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 멜론 뮤직 어워드(MMA)'에서 대상인 아티스트상과 베스트송상, 네티즌 인기상 등 4관왕을 거머쥐었다.

빅뱅은 아티스트상 수상 소감에서 "대부 10주년을 앞두고 오랜만에 다섯 명이 모두 참석한 시상식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보여 줄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송상에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화려한 변주가 특징인 빅뱅의 '뱅뱅뱅'이 뽑혔다. 빅뱅은 시상식에서 지금까지 방송 무대로 선보이지 않은 '이프 유'(IF YOU)를 노래했고 '루저', '뱅뱅뱅', '맹진진', '판타스틱 베이비'까지 이어지는 연찬란 무대를 선보였다.

앨범상에는 발매 40일 만에 73만 장이 판매된 엑소의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가 선정됐다.

신인상의 영광은 보이그룹 아이콘과 걸그룹 여자친구에 돌아갔다. 아이콘은 박찬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음원 판매량과 투표로 10명의 가수를 선정하는 '톱10'에는 에이핑크, 빅뱅, 엑소, 산이, 자이언티, 사이니, 소녀시대, 씨스타, 도이, 혁오가 올랐다.

발라드상은 백아연의 '이렇게만 그리지말자', 댄스 부문은 방탄소년단의 '아이 니드 유'(I NEED U)와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Ice Cream Cake), 랩·힙합 부문에는 마드를 라운의 '화'가 선정됐다.

알앤비·소울 부문은 나열의 '같은 시간 속의 너', 록 부문은 김성규의 '너야야만 해', 팝 부문은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Uptown Funk)가 차지했다.

핫트렌드상은 올해 여름 음원 차트를 점령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가 받았고 뮤직비디오상은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에게 돌아갔다.

영화 '검은 사제들' 개봉 3일만에 100만명 돌파

'베테랑' '암살'과 같은 흥행 신기록

김윤석, 강동원 주연의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 3일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영화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8일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7일 오후 9시30분께 '검은 사제들'의 누적 관객 수가 100만39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3일째 100만명 돌파는 올해 '천만 영화' 대열에 들이선

'베테랑', '암살'과 같은 흥행 신기록이다. 11월 개봉 영화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인터스텔라'와도 같은 속도다.

'검은 사제들'은 뽕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신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김윤석, 강동원이 신부부 출연한다.

'검은 사제들'은 5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매율 역시 50%를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